

기업윤리 브리프스

6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에서 “기업윤리”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전문가 칼럼

기업윤리와 조직문화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기찬

시건방 춤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창 올라가는 중에 이제는 시건방짓으로 나라망신 시키는 추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욱 한심한 이유는 그들이 기업과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출세 가도의 ‘잘난’ 인물이거나 성장 가도의 ‘힘센’ 집단이 라는데 있다. 윤리적 판단은 이처럼 간명한 경우도 있지만 기업경영에서는 복합적인 가치 잣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1972년 세계적 석유파동

직전에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인 록히드사에서는 군수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일본의 ANA 항공에 2천 500만 불의 뇌물을 공여하여 1억 500만 불의 트라이스타 L-1011 판매실적을 올렸다. 록히드사는 이외에도 1950년부터 1976년까지 수많은 뇌물제공을 통하여 그동안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급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어 왔다. 적어도 1976년 미 상원에서 비리 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전세계 정관계 및 산업체와의 ‘Win-Win 로비 게임’을 해온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10만 명의 행복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 2만 5천 개를 위한 기업의 문어발식

윤리경영 트렌드

기업윤리의 국제 표준화

:: 기업윤리의 필요성과 발전단계

기업윤리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판단기준 및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영위험 관리의 다양화, 기업윤리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기업윤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윤리는 기업이 이윤추구와 윤리적 고려를 어떻게 균형 시키는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무도덕단계(amoral stage), 2단계 준법단계(legalistic stage), 3단계 대응단계(responsive stage), 4단계 윤리관 태동단계(emerging ethical stage), 5단계는 윤리적 선진단계(developed

ethical stage)이다. 윤리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는 명확한 윤리관과 윤리원칙을 천명하여 모든 기업구성원이 그 원칙에 따라서 윤리와 관련된 기업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대기업 총수치고 뇌물과 비자금 문제로 옥살이 한번 안 해본 경영자가 있는가” 를 반문할 정도로 비자금과 뇌물공여는 우리 역시 풍토병처럼 만연되어 있다. 작년도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위(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의 90점에 비해 너무나 낮으며, OECD 34개국 중에서도 27위로 한참 뒤에 있다.

게다가 매년 그 순위가 3단계씩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는 잘난 기업(경영자)은 늘고 있지만 존경받는 기업은 사라지고 있다” 라는 냉소 섞인 핀잔도 듣는다. “비윤리적 풍토병이 이처럼 고질병으로 악화되고 있다면 과연 그 치료약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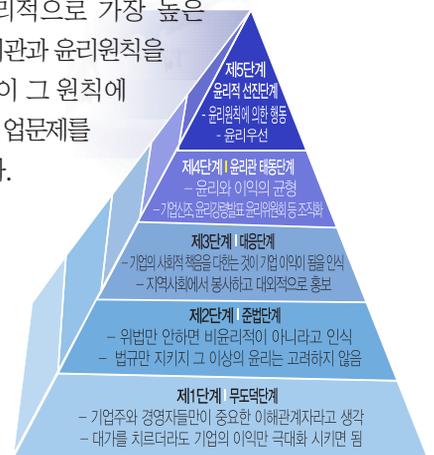
▶ 3면에 계속됩니다.

ethical stage)이다. 윤리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는 명확한 윤리관과 윤리원칙을 천명하여 모든 기업구성원이 그 원칙에 따라서 윤리와 관련된 기업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윤리적 선진단계 진입을 위해 기업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은 장기 발전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기업윤리 실현에 더욱

힘써야 할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기업윤리 경영의 국제표준화 경향이 국제무역기구(WTO),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널리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윤리경영의 국제표준화는 기업의 윤리성이 제품의 품질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경영자의 윤리의식은 물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윤리적 발전단계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조달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앞 못 붙인다

조달청은 '원칙이 바로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월 13일부터 운영함.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며, 누구든지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저축은행 경영 투명성 제고 추진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에서 올 한해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대주주의 정기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음. 아울러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면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임

주류업계, '착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주류기업들이 최근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강화하고, '착한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디아지오코리아는 4월 사회공헌을 위한 '디아지오 코리아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7월부터 정식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매년 10억씩 5년간 총 5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해 운영할 예정임. 하이트진로는 지난 해 7월 그룹 안에 흩어져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체계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전담팀'을 신설하였음

대기업들, '을'의 불만 스킨십으로 달려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을'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 교감에 적극 나서고 있음.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는 협력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SK그룹, 빙그레, 현대백화점, LG전자, 삼성전자는 동반성장·소통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동반성장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갑을 관계' 불만 표출의 발단이 된 식품업계뿐 아니라 제조업체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해외 윤리경영 동향

유럽연합 '1조 유로 탈세 추적 예외 없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의 탈세 추적을 개인, 기업, 그리고 탈세를 사주하는 국가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은닉한 전 세계 유명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탈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1조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조세 사기와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과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지속가능 보고서와 이익의 관계

MIT 슬로안 경영대(MIT SMR)는 '지속가능 보고서가 점점 더 많은 기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The Innovation Bottom Line'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600여 명의 기업가들과 관리자 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성의 실천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보고한 응답자의 수는 지난 해 23%에서 올해 37%까지 증가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과 이익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이론에 힘을 실어주었음

유럽 거대 석유기업 가격 담합 조사

유럽연합, EU가 영국의 로열 더치 셸과 영국의 BP, 노르웨이의 스타토일 등 3개 거대 석유기업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이번 조사는 프랑스의 석유회사 토탈이 작년 여름 '가격정보업체가 발표한 가격이 1년에 몇 번씩 우리 정보와 맞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거대 석유회사들이 공모해 왜곡된 가격을 에너지 가격정보업체에 전달, 시세를 조작해 왔다는 의혹을 조사함

미국 의류산업계 '공정 노동' 운동 불붙었다

뉴욕타임즈는 9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봉제공장 건물붕괴 참사를 겪으면서,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전까지 따지는 쪽으로 윤리적 소비 운동이 더 간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음. 최근 의류 등 공산품 제조·유통 부문에서 저임금과 노동착취를 근절하려는 '공정노동(fair labor)'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어디서 얼마나 정직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공개하는 공정노동 의류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볼보·지멘스...글로벌 기업 '갑 횡포' 방지 어떻게 하나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갑을 관행'과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문화와 기업의 핵심가치를 성과보다 우선시 하고 있음. 대표적인 장수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듀폰, 스웨덴의 볼보 등 기업들은 직원들의 입사 직후부터 기업의 핵심가치와 윤리 규정 준수를 체질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매뉴얼로 명문화해 정기적으로 교육 시키고 있음

권익위원장, 바른경제동인회 초청 강연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은 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경실련 상공인 모임에서 출발한 (사)바른경제동인회(회장 조순)가 주최한 조찬회에 참석해 "청렴은 국가경쟁력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음



찾아가는 기업윤리 방문교육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윤리 경영 지원을 위해 5월 28일 POSCO AST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년도 1차 기업윤리 방문 교육(기업윤리가 지속가능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시하였음



2013 반부패 심포지엄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 협회와 한국투명성기구는 5월 29일 서울 중구 소재 페르타타워에서 반부패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2013년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소개와 한국 투명성 개선 방안을 논의 하였음

행동강령 시행 10주년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0주년을 맞아 5월 31일 서울 명동 소재 POST TOWER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 명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행동강령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공식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현장을 찾아서

:: 교보생명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 다짐

교보생명이 지향해온 윤리경영은 회사의 핵심목적과 핵심가치, 회사 규정과 사회법규를 준수하면서 고객 기대에 대한 만족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실을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적극적인 경영방식이다.

윤리경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임직원의 행동지침 제정·운영

교보생명은 2000년 4월 보험업계 최초로 '교보인의 직무윤리현장'을 선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6월 실천이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실천규범을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는 임직원의 직무윤리 실천을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한 방향으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다. 실천규범의 항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곧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구현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직무윤리 교육 프로그램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직무에서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잘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 임원 미팅 시 준비감시인 주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시로 실시하여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독려하고 있으며, 각 조직의 조직장 및 직무윤리 실천 담당자 대상의 정기적인 소집교육으로 업무현장의 자율적인 직무윤리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회사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입문과정에 직무윤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준법·윤리 자체교육의 날'을 지정하여 각 조직장 주관 하에 자율적인 직무윤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업

교보생명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네 가지의 약속(고객보장을 잘하는 회사, 재무설계사·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회사, 정부·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회사)를 실천하기 위한 10개의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이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 내용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수록하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또한 임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경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고, 노·경이 힘을 합쳐 화합을 다지고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3회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 7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 지난호에 이어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FCPA 안내서에서는 선물과 향응 문제, 내부 통제시스템 수립 의무(internal controls)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물과 향응 문제

선물과 향응의 경우, 작은 일회성 선물 등 합리적 수준의 개인적 선물 및 접대는 정부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이러한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부정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FCPA 안내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액의 금품이 조직적으로, 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의 일부로서 사업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정할 의도로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중점을 두고 있다. 즉 FCPA가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내의 뇌물 관련 법규와 마찬가지로 선물 등으로 위장된 뇌물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FCPA 안내서는 정부 공무원에 대한 선물 및 접대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업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에 의한 선물 제공과 관련해 명확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침 및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내부 통제시스템 수립 의무(internal controls)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내부 통제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부 통제시스템 수립에 대한 검토에 있어 '위반 발생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효과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상장기업들은 기소와 관련하여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FCPA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책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FCPA 안내서에서는 잠재적 피인수 기업에 대한 인수 전 FCPA 실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은 잠재적 피인수 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부패리스크를 인수 전 실사 및 인수 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FCPA 실사 및 인수 후 컴플라이언스 노력 덕분에 정부가 인수 전의 위반 사안에 대해 인수 기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인수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의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수 이전에 FCPA 실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을 인수한 즉시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통합시킴으로써 관련 정책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 지금까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FCPA 안내서를 토대로 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 1면에서 이어집니다.

기업윤리는 정당성에 따른 '정·오(right or wrong)'로 판단하는데 비해, 조직문화는 합리성에 따른 '강·약'으로 평가된다. 그림에서처럼 물론 가장 바람직한 기업상은 적법하게 상생하는 풍토가 체질화된

'실질적 정도기업'이라 할 수 있다. 기타 형식적로만 정도경영을 표방하거나, 기회만 되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예 구조적으로 비리를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은 예외 없이 문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하고 올바른 경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서 국내외 경영학의 구루(Guru) 두 분의 논지를 함께 새겨보자. 첫째는 "기업의 목적은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내외부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 결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있다"라는 피터 드러커 교수의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영속기업론이다. 즉, 기업이 성과와 성장만 중시하고 정도경영과 고객존중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그 존재가치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용<가격<가치], 즉 기업은 [가격-비용]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성장하며, [가치-가격]에서 나오는 고객의 신뢰에 의해 생존여부가 결정된다"는 윤석철 교수의 경영의 본질에 대한 생존방정식이다. 구루들이 추천하는 치료약은 이처럼 고객과 종업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는 신뢰 속에 무한정 담겨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보는 윤리... 유통업

:: 유통업계의 주요 윤리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노력

기업 경영의 핵심 축은 도덕과 윤리이며 기업의 구성원 개개인의 됴됨이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갑을 관계 명칭 및 개념 재정립

최근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선택에 있어 제조과정에서 윤리를 잘 실천하고 공정노동(fair labor)을 실현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유통과정의 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갑을 관계가 뚜렷한 유통기업들이 계약상의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일례로 현대백화점은 계약서에 사용하던 '갑'과 '을'이란 용어를 '백화점'과 '파트너사'로 바꿨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 계약에서 '갑', '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갑'과 '을'은 통상 거래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점차 지위가 우월하거나 열등함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된 게 사실임으로 이같이 명칭을 바꾸는 추세가 나타난다.

가매출과 밀어내기

가매출은 상품 거래 없이 전산상으로만 매출을 일으켜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입점업체들은 판매수익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백화점에 내게 되는데, 유통업체의 매출목표 달성 요구치를 달성하지 못해 미달된 금액을 자의반 타의반 가매출 형식으로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또한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 등의 밀어내기식 영업도 중요한 이슈다. 대리점에 물량 떠넘기기와 비용 부담 전가라는 잘못된 영업 관행이 구조적인 문제로 존재해왔는데, 최근 기업들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파트너와의 공동목표 수립 시스템과 반품될 경우 비용처리를 본사가 일정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범거래기준이나 정보공개서 등에 명문화하고, 반송 시스템을 도입, 대리점 고충처리 기구 운영과 대리점 상생기금 조성 등을 통해 상생과 유통 윤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통의 투명성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요구된다. 음원 유통시장을 한 사례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코드가 업체마다 달라 어떤 곡이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최근 음원에도 주민번호 같은 '표준식별 코드'를 달아 음원 유통 시장이 한층 더 투명해졌다. 음원 창작자들은 음원 사이트 업체에서 음원 유통 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집계된 정보가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디지털 음원 650만 건에 표준 코드를 부여하여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이 몇 번 카운트 되는지 등을 통해 집계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수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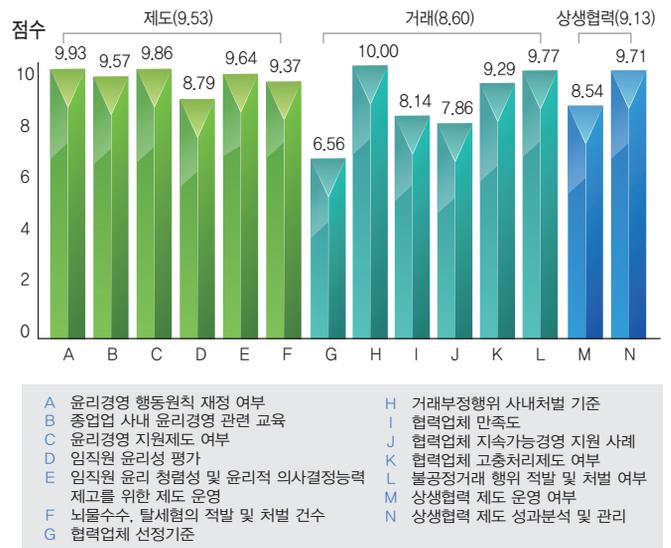
2012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 결과

KoBEX SM™은 지속가능경영 비전, 지배구조, 작업장, 협력업체, 고객, 지역 사회, 환경경영 등 전체 7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평가 주제에 따라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은 작업장 영역의 윤리경영 제도 6개 항목, 협력업체 영역의 거래 6개 항목과 상생협력 2개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조사는 4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38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세부 영역 점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윤리경영 관련 제도 9.53점, 거래 8.60점, 상생협력 9.13점으로,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거래 영역의 점수가 지난 3년 동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 영역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윤리경영 관련 구성 항목별 점수 비교



윤리경영 관련 영역 최근 3개년 결과



각 항목을 살펴보면, 윤리경영 영역에서는 임직원의 윤리성 평가(8.79)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윤리경영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윤리경영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을 평가하고 기존의 윤리경영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내포한다. 또한 기업의 윤리경영 트렌드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경영 내실화를 위해 임직원의 윤리성 평가 뿐 아니라 이를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거래 영역에서는 협력업체 선정기준(6.56)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과 같은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으므로 협력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정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협력업체 지속가능경영 지원 사례(7.86), 협력업체 만족도(8.14)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협력업체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영역에서는 상생협력 제도 운영 여부(8.54) 항목이 낮게 나타나, 이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1. 알선 · 청탁 금지

Q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 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문제가 될지?

A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선 · 청탁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2.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표시로 주는 상금

Q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A공기업 직원이 해외에서의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공기업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은 공직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간소한 감사패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 : 공직자 행동강령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6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 내

청렴정책 민간기업 전수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013년도 1차 청렴정책 민간기업 전수과정'에 이어 '청렴도 진단모델 및 분석기법' 등을 주제로 2차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실시할 예정임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 일시 : 6월 13일(목)
- 대상 :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기업윤리 방문교육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을 위해 '윤리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6월 2회(2013년도 2차, 3차)에 걸쳐 찾아가는 '기업윤리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 일시 및 대상
- 2차 : 6월 4일(화), 한진해운 계열사 임직원
- 3차 : 6월 20일(목), 대한항공 준법지원 담당자

제6회 2013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 대한민국 상생경영 대상

한국경제매거진이 '제6회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과 '대한민국 상생경영 대상' 을 공모함.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하고, 6월 14일(금)까지 응모신청을 받음

- 주최 : 한국경제매거진
- 일시 : 6월 27일(목)
- 장소 : 흥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

국 외

제3회 Sustainable Luxury Forum

구찌, 샤넬 등이 참여 예정인 이번 포럼에서는 럭셔리산업 및 뷰티 산업계의 CSR,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리스크, 공급 사슬 관리의 과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임

- 주최 : Sustainable Luxury Forum
- 일시 : 6월 18일(화)~19일(수)
- 장소 : 제네바

Responsible Business Summit USA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SR을 통해 기업 평판을 확립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 하며, 조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지를 다룰 예정임

- 주최 : Ethical Corp
- 일시 : 6월 18일(화)~19일(수)
- 장소 : 뉴욕

2013 Solution Expo

세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컨셉', '소비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발전 방안' 및 '환경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함. BMW, 코카콜라, HP, CANON 등 다수 기업이 참가할 예정임

- 주최 : Sustainable Brands
- 일시 : 6월 4일(화)~6일(목)
- 장소 : 샌디에고

윤리경영 퀴즈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판단기준과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1) 조직윤리 2) 직무윤리 3) 기업윤리 4) 공무원윤리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조형주님, 윤환식님, 이나영님, 김사랑님, 황민철님입니다.

※ 보내주시는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법!
Ok 윤리!

Clean 계약제



끓는다! 끓어!!!

무슨 일 있어?



내가 이번에 A사 입찰에 들어갔잖아~ 거기 오차장이라고 있는데...



뭘 요구하는 것 같은데 말은 안하고... 아주 미치겠어~



차라리 대놓고 요구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라니까!



그런데... 자넨 이번에 B사 입찰 들어갔지? 거긴 어때?



거긴... 입찰설명회 때 대놓고 이야기하던데?

정~~말??



계약과 관련해서 B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이에 금품·향응에 대한 요구나 제공을 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야.



Clean계약제라고 하던데... 위반하게 되면 해당업체는 입찰제한 등 제재가 가해지고, 해당 임직원은 사유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말로는 누가 못해? 다들 윤리경영, 투명경영 그러지...



오히려 나중에 그런 데가 더 뒤통수를 치더라고~



계약 해당부서가 아니라 준법감시인한테 신고하는 채널도 소개해 주던 걸?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았어.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법인데...

그러니까 존경받는 기업이지~

Clean 계약제, 협력업체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중만)

새로운 책 소개



1. 피터 드러커의 산업사회의 미래

저 자 : 피터 드러커 저(안중희 역)
출 판 : 21세기북스
출판일 : 2013년 05월 15일
정 가 : 18,000원



2. 그들은 왜 회사의 주인이 되었나

저 자 : 마조리 켈리 저(제현주 역)
출 판 : 북돋움
출판일 : 2013년 05월 20일
정 가 : 15,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